



## 서울 9급 평가 해설

## 정답 및 해설

### 정답

1.	2.	3.	4.	5.	6.	7.	8.	9.	10.
②	①	①	④	③	②	④	④	②	④
11.	12.	13.	14.	15.	16.	17.	18.	19.	20.
④	②	②	①	④	③	②	③	②	①

### 해설

- (가)는 좁은 의미의 문화, (나)는 넓은 의미의 문화  
 ① 좁은 의미로 사용  
 ② 기계와 같은 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화에 포함된다.  
 ③ 문화는 모두 후천적으로 학습된다.  
 ④ 평가적 의미가 내포된 것은 (가)이다.

- 새로운 내용이라는 것은 수정 자본주의의 내용으로의 변화를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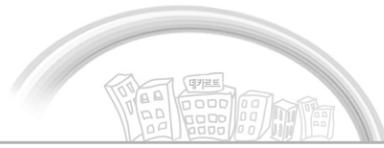
근대 민법 3대 원칙		현대 민법 3대 원칙
사유재산의 원칙 (소유권 절대의 원칙)	→	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
사적 자치의 원칙 (자유의사, 계약자유 원칙)	→	계약 공정의 원칙
과실 책임의 원칙	→	무과실 책임의 원칙

- 기본권의 종류로 나누자면 (가) 청구권, (나) 사회권, (다) 자유권으로 나뉜다.  
 ① 청구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며 적극적 권리이다.  
 ②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이다.  
 ③ 자본주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.  
 ④ 자유. 평등권은 소극적 권리이며, 사회, 참정,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이다.

- 그림은 easton의 '산출모형'이다.  
 투입과정에는 선거, 여론, 정당, 시민단체, 이익단체등이 포함되며 정책결정기구에는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이 들어가며 산출과정에는 정책결과와 집행을 의미한다.

- 국회의원 선거는 투입과정이며,  
 ② 투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,  
 ③ 삼권분립 중에서 현대에는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고 있으며,  
 ④ 권위적인 정부일수록 여론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.

5. ① 부모와 자녀의 계층 비교는 세대간 이동이다.  
 ② 계층을 세습하여 이동했다는 것은 세대간이동과 세대내 이동을 겸한 것이므로 둘다 해당된다.  
 ③ 폐쇄적 계층구조라는 것은 수직적 이동이 되지 않은 사회를 뜻한다. 세대간이건, 세대내건 이동은 불가다.  
 ④ 신분제 폐지는 모든 사회적 이동을 총 망라한다.
- 
6. A는 정당이며, B는 시민단체, C는 이익집단이다.
- ① 정당은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나, 이익집단은 그렇지 않다.  
 ② 정당은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. 특수한 영역에 관심 갖는 것은 이익집단이다.  
 ③ 정당, 시민사회, 이익집단 모두 여론 형성기능을 한다.  
 ④ 이익집단은 정당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한다.
- 
7.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100개씩 증가했다고 하므로 가격변동 없이 거래량만 증가한다.  
 ●공급과 수요가 모두 증가한 경우의 예를 들면  
 공급증가 > 수요증가이면 가격은 하락한다.  
 공급증가 < 수요증가이면 가격은 상승한다.  
 공급증가 = 수요증가이면 가격은 그대로이고 거래량만 증가한다.
- 
8. (가)는 사회보험, (나)는 공공부조, (다)는 사회복지 서비스이다.
- ①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.  
 ② 보편적 복지는 사회보험이고, 선별적 복지는 공공부조이다.  
 ③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이다.  
 ④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.
- 
9. ①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이 갖는다.  
 ② 한미 FTA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.  
 ③ 한미 FTA와 법률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.  
 ④ 한미 FTA는 발효와 동시에 실제 효력을 가진다.
- 
10. A재는 10% 상승한 만큼 10% 수입이 감소했으므로 단위 탄력적  
 B재는 수입의 증감이 없는 상태로 비탄력적  
 C재는 가격을 올린 만큼 수입이 증가했으므로 완전 비탄력적
- ① A재는 단위탄력적  
 ② 가격 탄력성이 0인 것은 완전 비탄력적  
 ③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  
 ④ C재 수요는 완전 비탄력적



11. A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, B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.
- 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이다.
  - ②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.
  - ③ 의회는 수상을 불신임 할 수 있고, 수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. 이는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.
  - ④ 대통령제의 특징이며, 의원내각제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.
- 
12. 기업은 공식조직이며, 이익집단이고,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며,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며, 친목단체이고, 자발적 결사체이다.
- ① 기업은 공식조직이고,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다.
  - ② 자발적 결사체는 동호회만 해당된다.
  - ③ 비공식 조직은 공식조직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 문제를 완화시킨다.
  - ④ 동호회는 기업과 달리 정의적인 관계를 중시한다.
- 
13. 사회구조를 보는 관점은 기능론, 갈등론,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보느냐, 거시적, 미시적으로 보느냐, 명목론, 실재론으로 보느냐로 나눌 수 있다. 지문은 유기체와 같다는 것으로 보아 기능론적 관점이다.
- ① 변동을 새로운 균형이라는 좋은 의미로 판단하였으므로 기능론이다.
  - ② 기능론은 본질적으로 사회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지, 사회 변동을 원동력으로 삼지는 않는다.
  - ③ 외부 환경이 변화해도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는 것은 기능론이다.
  - ④ 사회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.
- 
14.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실증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이 있다. 계량화 할 수 있고, 통계,분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.
- ① 가치와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은 실증적 방법이다.
  - ② 방법론적 이원론은 해석적 방법이다.
  - ③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 방법론적 이원론이다.
  - ④ 생활 세계의 일정한 규칙, 법칙 보다 심층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해석적 방법이다.
- 
15. GNP와 GDP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. 쉽게 하자면 GDP는 GNP-해외수취요소+해외지불요소가 된다. GDP>GNP는 해외지불요소가 해외수취요소보다 크다는 의미가 된다.
- ① 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대비해야하므로 2008년도 자료가 없으므로 알수가 없다.
  - ② 2009년에서 2010년의 GDP증가율은 10%이지만, 2010년에서 2011년도의 GDP증가율은 9%로 다르다.
  - ③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, 해외지불요소가 증가했다면 해외수취요소는 감소했을 것이므로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다.
  - ④ 외국 기업이 갑국에 생산공장을 신설한 것은 해외지불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GDP증가의 요인이 된다.

16.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순서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.
-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.
  - ② 의결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개정안 공고 60일 이내, 재적 의원 2/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  - ③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.
  - ④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.
17.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가,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.
- ① 배제성 경합성은 사유재산이므로 시장 거래 가능하다.
  - ② 비배제성 경합성이므로 과다하게 소비되어 고갈될 수 있다.
  - ③ 배제성 비경합성이므로 돈만 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. 무임 승차 불가.
  - ④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므로 돈이 되지 않는다. 돈이 안 되는 것을 과다 생산할 수 없다.
18.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나,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. 타인에 직접적 해를 끼치지 않으면 정당행위, 타인에게 직접적 해를 끼치면 정당방위이다.
- ① A는 개의 공격을 피해 타인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긴급피난이다.
  - ② A, B 둘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. 다만, A는 일반적,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이고, B는 개별적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.
  - ③ A, B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.
  - ④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.
19.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사회 현상을 묻고 있다. 엔화는 상승하고 있고, 달러는 하락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것만 구별할 줄 알아야한다.
- ① 엔화 상승하고 있으므로 외채의 상환을 앞당긴다.
  - ② 엔화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일본 여행을 빨리 다녀오는 것이 좋다.
  - ③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은 미루도록 한다.
  - ④ 소지하고 있는 달러를 빨리 원화로 바꾸는 것이 좋다.
20. 노동 가능 인구로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.
- ① 2010년의 실업률은 40%, 2011년의 실업률도 40%로 같다.
  - ② 노동가능인구는 같은데 취업률이 감소하였으므로 고용률도 감소하였다.
  - ③ 문제에서 노동 가능 인구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으므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.
  - ④ 취업자의 증감 여부는 취업률로 알 수 있다.